

전북지역 농촌주택의 계획 방향

유 옥 순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주택과 마을 단위에서 최소의 정주 공간이 갖는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여러 마을의 실증 조사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의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실태 및 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2) 마을을 구성하는 주택 형태 및 이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계획마을에서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문화마을, 비계획 마을에서는 자연마을, 관광마을을 조사 마을로 선정하였다.

마을조사는 이장님 혹은 마을운영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표에 근거한 면접조사를 하였고, 주택조사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방법을 병행하였다. 폐쇄형 설문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양적분석을 하였고, 개방형 설문 응답내용의 경우는 유사내용끼리 분류하여 유목화하는 질적분석작업을 거쳐 양적분석을 하였다. 분석에는 SPSS 10.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카이검증, F분석, 상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마을은 농촌 기술 센터에서 답사 후, 테마마을로 선정하여 약 2억을 지원하였다. 문화마을은 정부시책에 따라 문화 마을로 선정하여, 주택 설계 및 건축에 도움을 주었다. 취락구조개선마을은 1990년도에 부엌개량이 있었을 뿐, 그 후로 통합(1995)되기 전 취락구조개선마을로 선정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연기되어 아직 정부의 지원이 없었고, 자연마을은 옥외화장실, 도로포장, 상수도 시설, 부엌 개량에 관한 지원이 있었다.

둘째 마을에 대한 대표자의 요구사항으로 문화마을은 마을계획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리모델링의 지원, 관광마을은 농로 확 포장, 상수도 처리, 환경 정비보상, 공해 유발 방지 등이며, 취락구조개선마을은 저소득계층이 많은 빈촌으로 소득원이 없어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 자연마을에서는 회관이나 노인정의 요구 등이 있었다.

셋째 마을 정비를 위한 제안점으로 주민의 마을만족도 평가 결과, 72%가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도 평균은 3.95점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마을정비사업 추천의사를 살펴보면, 문화마을과, 관광마을의 경우 사업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향후 마을정비사업의 방향설정에서는 관광마을과 문화마을 사업은 다소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되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부정적 시각에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주택만족도와 개조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하는 농촌주택에 대해 과반수(54.0%)가 만족하였으며 조사주택의 72%가 주택을 개조하였다. 주택개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조 및 보수(44건, 54.3%), 신축 혹은 재축(25건, 31.1%), 증축(12건,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